

Kenneth Mathews 박사, 창세기, 세션 13, 언약 의식과 언약의 표징, 2부

© 2024 케네스 매튜스 및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창세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Kenneth Mathews입니다. 13회, 언약의식과 언약의 표징, 2부, 창세기 15:1-17:27입니다.

오늘은 15장, 16장, 17장에서 찾은 내용에 대한 토론의 연속인 13과 2부입니다.

지난번 15장에서 언약의식에 대해 이야기한 데 이어 이제 16장의 이 중요한 부분을 이스마엘의 탄생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언약의 표징이 나옵니다. 16장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의 경우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이 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장 1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에게 자식을 낳지 못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11장에서 배운 내용을 제시합니다. 그녀는 임신하지 못했으며 계속해서 임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에 동의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라 이후로 오히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Sarah가 75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85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아이를 낳을 다른 계획을 제안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15장에서 아브라함의 집 종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자고 제안했을 때 하나님께서 15장 4절에서 네 몸에서 아들이 날 것이라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게서 사라 자신이 아이를 가지자고 제안한 것이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될 것이고 이집트 여종인 하갈은 어머니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간주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사라.

그러므로 대리모 입양 풍습에 있어서는 이는 용인된 일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에 동의했기 때문에 사라와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와 잤다고 합니다.

4절에 보면 그가 하갈과 동침하여 그가 잉태하였더라. 이제 이전 구절을 보면 창세기 3장의 표현을 사용하여 이브가 열매를 따서 남편에게 준 내용이 무엇인지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에 그의 아내 사라가 자기의 여종 애굽인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이는 정원에서 일어난 일을 의도적으로 반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태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골치 아픈 의심, 영적 여정의 일부, 하나님과의 관계 성장의 일부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구원하기 위해 취하신 또 다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갈은 외국인, 이집트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약속에 대한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와의 죄의 메아리는 출산 약속이 실현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로 두 여자, 사라와 하갈 사이에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고대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매우 강력한 전통은 자녀를 갖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으면 사회에서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 자녀를 둔 여성에게는 항상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이가 없다면 여성의 가치는 감소합니다. 물론 이것은 관습이었을 뿐 성경적 요구도 아니고 성경적 선례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택에 의해서든, 남편이나 여성 자신의 무능력에 의해서든 임신하여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성들이 있다는 것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멸할 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도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초창기에 고대의 관습이었으며 오늘날 그리스도인 여성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사라가 정말로 아브라함을 비난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실제로 아브라함에 대한 고발이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고발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비난입니다. 오히려 내가 겪고 있는 잘못은 당신 책임이라고 그녀가 말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인을 당신 품에 안겨 주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업신여깁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녀가 내린 결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느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브라함이 공동 참여자임을 인정하거나 적어도 비난합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녀는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그것을 주님께 정당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둘 다 잘못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6절). 당신의 종이 당신의 손에 있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당신의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소서.

하갈이 그의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분명히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여 그에게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대한 증거를 다시 얻었습니다.

7절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 곧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에서 하갈을 찾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절.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천사는 내가 너희의 수를 너무 많아 셀 수 없을 정도로 늘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 분명히 들었습니다.

땅의 티끌과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이 있느니라. 이제 우리는 이 아이가 아브라함과 맺게 될 관계를 바탕으로 주님께서 확장하신 약속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순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자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12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후 장들에서 제시될 것이다.

이제 천사 주님은 이스마엘의 이러한 성격을 묘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 주님이 하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어린 아이이다.

너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그런데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뜻하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TL입니다.

이스마엘아, 하나님이 들으시느니라. 이스마여, 신이 들으시느니라. 이것이 설명입니다.

주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애굽 여종의 필요를 자비로우시고 세심히 돌보시느니라. 그리고 그분은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보호하고 부양하실 것입니다.

즉,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마엘에게 큰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이것이 그의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의 들나귀가 될 것이다.

즉, 그는 사회의 소외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광야의 투기장에서 그는 또한 매우 적대적인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칠 것이며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형제들을 대적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라와 하갈 사이의 적대감을 본 것처럼, 이것은 그들의 후손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자손과 약속된 이삭의 자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에서 나온 국가들의 오랜 역사를 통해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갈의 경험을 다룬 또 다른 연극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는 것과 관련된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주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말씀하신 여호와께 그 이름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이제 나를 감찰하시는 분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나를 보시는 분은 El Roi, EL, God이십니다. 바로 로이(Roi)라는 단어입니다.

일부 버전은 실제로 El Roi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여기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는 번역되어 있는데,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브엘라해 로 이라 하였으니 이는 나를 보시는 산 이의 우물이라는 뜻이더라.

이는 그녀의 경험을 통해 위치를 식별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여성으로서 그녀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듯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인 엘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찬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은 우리가 외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도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서와 에돔 사람들의 삶에서 이것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를 위한 자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모든 나라,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적들까지도 축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 15절, 하갈이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으매 아브람이 이스마엘이라 이름하였더라. 그러므로 돌아올 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한 설명이 있었음에 틀림없으며 그는 이에 따라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 시대의 날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연대기와 아브라함의 이 여정을 측정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3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17장에 나오는 할레 언약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은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식별하는 주요 표시 중 하나와 관련이 있고 할레의 언약의 표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장입니다. 15장이 의식에 의한 인가에 관한 것이라면, 17장은 할레의 표에 의한 확인에 관한 것이다.

다른 언약이라고 믿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할레 언약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여기 내 앞에서 행하여 흠이 없게 될 것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흠이 없게 하라. 그러나 나는 적어도 나와 다른 주석가들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동일한 언약의 연속임을 가리키는 15장과 17장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5장 1절과 7절에 나는 존재한다는 진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17장에는 I am 진술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기 히브리어 엘 샤다이(El Shaddai),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17장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여정을 추적하고 적용하면서 이 점에 반복해서 주목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점점 더 긴밀한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 즉 주님에 대해,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과 약속의 본질, 약속의 확실성에 대해 훈련하고 가르치시는 방식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약속을 어떻게 전개 방식으로 사용하실 것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더욱 긴밀한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장을 보기를 원하며 이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보고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그분의 넘치는 사랑과 특별한 백성을 창조하려는 열망 때문에 창조를 선택하셨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들을 자신의 소유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경이로움, 생명, 영원한 생명, 완전한 사랑,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화, 이 모든 하나님의 삶의 놀라운 측면을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그것을 받으니까? 하나님은 계시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십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연설도 보았고 환상이 일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17장에 이르면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고 들으시는 또 다른 나타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창조하시고 특별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데 너무나 헌신적이고 헌신적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나타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알 수 있듯이, 신격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총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오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여기 16장에서 본 것처럼 구원의 천사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기, 어린이, 약속의 자녀로 오셨고, 인간처럼 자라셨으며,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성품은 참으로 독특한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주님의 인성 덕분에 우리가 그토록 많은 경험을 하면서도 주님에 대해 완전한 신실함을 유지하신 덕분에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해 자발적으로 삶과 죽음의 고통과 비애를 짊어지셨고, 그 고통과 손실을 흡수하시면서도 우리의 마귀, 사탄, 질병과 죽음의 대적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와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라는 제안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엘 샤다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니라.

우리는 샤다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몇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영어 번역은 일반적으로 그리스어 번역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El Elyon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El 이름 중 하나이며 El Roi 및 기타에서 본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족장들이 주 하나님을 식별할 때 자주 사용했던 엘 이름 중 하나입니다. 이제 내 앞에서 행하고 흠이 없는 자라는 말은 그 당시 우리에게 셋 족보에 속한 에녹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에서 주님의 면전으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노아는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에서 그가 흠이 없는 사람으로 밝혀졌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브라함이 주님께 더 가까이 걸어가라는 부르심이며, 그는 주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행동에 헌신함으로써 그렇게 해야 합니다. 흠이 없는 이 말은 그가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성이나 전체성을 나타내는 용어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실한 삶, 신실함, 경건한 삶을 살겠다는 내 성약의 권고이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그가 언약을 맺고 있거나 의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사실로 선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가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구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로 믿음에 헌신하는 삶,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한 보호를 위해,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보호를 믿으며,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올바른 도덕적 행동으로 그분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에서 내가 나와 너희 사이에 내 언약을 세워 너희의 수를 크게 늘리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문제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주요 문제이자 주요 긴장이며 자녀 출산입니다. 이제 나는 여기서 아브라함과 사래 모두에게 일어날 이름의 변화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이름의 변화는 새로운 정체성을 알리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람과 아브라함에게 사용된 언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람은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Ab)는 아버지를 뜻하고, 램(Ram)은 높임을 받는 아버지를 뜻한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려고 하고 그 이름을 설명합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행한 대로 선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많은 나라의 아버지로서 지속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선언입니다. 라함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라함은 많은 사람,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많은 민족의 개념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물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많은 민족이 형성된 바벨탑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실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부심과 명성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12장에서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겸손히 복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함부로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과 명성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하면서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에 읽은 내용이 생각나지 않나요?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9장 1절,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다산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민족들을 만들 것이다.

이제 이것은 6절의 추가적인 측면이며, 왕들이 네게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스마엘 지파의 왕들, 에서의 에돔 왕들,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유다의 열두 아들들에게서 다윗 왕조의 대왕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의 의지'가 매우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나와 너와 네 후손 사이에 대대에 걸쳐 영원할 것이다. 이제 이것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기대되는 구원자인 후손을 통해서입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이 영구적인 관계를 확보하여 여러분의 하나님과 여러분 이후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할지도 모른다.

내가 지금 거류민과 나그네와 나그네로 있는 가나안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15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첫 구절에서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절반을 쪼개는 언약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40년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배달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땅은 아브라함의 기업의 일부가 될 것이었습니다. 17장에서도 그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과 약속된 땅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 나아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헌신이라는 개념 안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싶습니다. 관계로서 언약의 중요성. 이제 인연의 표는 할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적절한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손을 생산하는 성기인 남성 기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후손에게 이 위대한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는 헌신의 표시 중 일부입니다.

이제 할례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웃 사람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사춘기 의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위생적인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약속의 신호, 심지어 몸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비유에 따르면 그녀는 민족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사라는 공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Sarah는 공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영웅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그가 웃는다. 왜냐하면 그의 나이 99세인데 그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 100세 된 남자가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이스마엘만 당신의 축복 아래 살 수만 있다면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0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에게 내가 이스마엘을 돌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이 아들은 내가 돌볼게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맺은 계약으로 인해 그도 너로 인해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는 12명의 통치자를 낳을 것입니다. 이삭은 12명의 통치자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1절에서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가 네게 낳을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나오는 아들의 정체는 이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부를 예정이며, 다음 시간 18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을 우연히 듣고 웃는 사라의 반응도 그녀가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이삭은 그가 웃다, 혹은 웃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삭이라는 이름은 그의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의심과 주저함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노령화 된 가족에게 가져올 큰 기쁨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그와 그의 가족 모두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그가 할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장은 집 안에 사는 모든 사람, 즉 언약의 우산 아래 사는 모든 사람이 할례를 경험했다고 말하며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축복을 받습니다.

그는 외부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이해하는 데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13과 18장과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Kenneth Mathews 박사와 창세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13회, 언약의식과 언약의 표징, 2부, 창세기 15:1-17:27입니다.